# 충남도립대, 복수학위제·어학연수로 글로벌 시야 넓힌다

박보성 기자 | 승인 2024.01.15 11:32

**재학생 13명 어학연수와 복수학위제 이수 위해 캐나다 출국...해외 취업 기회 확대**




복수학위제는 어학능력과 실무적 역량을 동시에 배양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은 캐나다 협력 대학에서 2~3년 전공 과정을 배우고 학위도 취득할 예정이다.

선발 학생은 건축인테리어학과 김민성·김대성, 호텔조리제빵학과 고현필 학생 등 3명이다.

김용찬 총장은 "충남도립대학교는 앞으로 글로벌 역량을 가진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통해 해외취업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립대학교가 해외 어학연수와 복수학위제를 통해 재학생들의 글로벌 감각과 취업 능력을 높인다.

충남도립대학교는 재학생 13명이 '동계 어학연수 및 복수학위제'를 위해 캐나다로 출국했다고 15일 밝혔다.

동계 어학연수는 복수학위제 학생들의 어학실력 및 현지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올해 동계 어학연수는 경찰행정학과 하예진, 토지행정학과 이한이·배소윤, 소방안전관리학과 김어진, 건설안전방재학과 김재은, 환경에너지학과 문병조, 전기전자공학과 이환희, 컴퓨터공학과 박규호, 자치행정학과 박혜련, 작업치료학과 임현균 등 10명이 선발됐다.

선발학생은 이날 캐나다 밴쿠버로 출국해 4주간 어학연수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립대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뉴-노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캐나다 우수대학과 협약을 맺고 어학연수·해외인턴십·복수학위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포=박보성기자

박보성 기자 bakin114@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